



유럽 증시,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등으로 강세 X

유럽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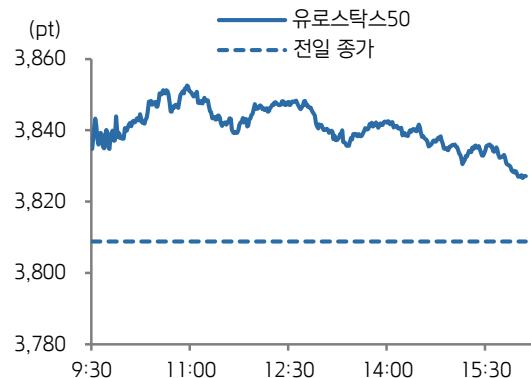
30 일(월)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데이로 휴장. 유럽 증시는 독일의 5 월 소비자물가(7.9%YoY, 전월 7.4%) 급등에도,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해 지역의 봉쇄조치 해제 소식,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(유로스톡스 50 +0.8%, 독일 DAX +0.8%, 프랑스 CAC +0.7% 등).

독일의 5 월 소비자물가는 7.9%(YoY)로 전월(7.4%) 및 예상치(7.6%)를 상회하면서 1973 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전월대비로도 0.9%를 기록하며 전월(0.8%) 및 예상치(0.5%)를 상회하는 등 미국 이외에도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.

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가로 러시아산 원유수입 중단을 논의 중이었던 EU 는 29 일 헝가리, 체코,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가 실패했으며 주중 재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힘. 이와 관련해 독일 경제장관은 러시아 침공 이후 대응 과정에서 EU 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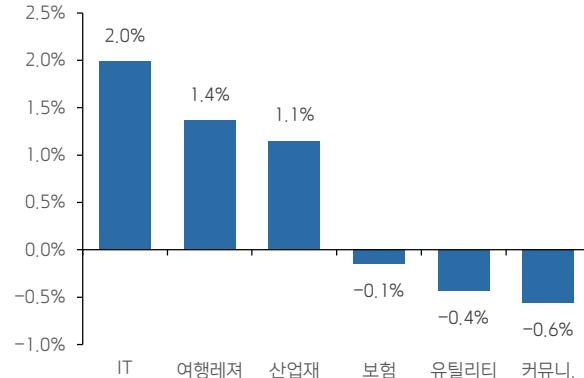
상하이시는 30 일 공고를 통해 6 월 1 일부터 고위험, 중위험 지역 혹은 통제 및 관리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더이상 제약을 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, 전면적인 경제 및 일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. 자동차, 오토바이, 택시 및 공유차량 영업도 재개하기로 허용했으나, 전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은 단계적인 회복 절차를 밟을 예정.

EUROSTOXX50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지수	가격	외환시장		
			변화	지수	가격
S&P500*	4,158.24	+2.47%	USD/KRW	1,239.15	-1.37%
NASDAQ*	12,131.13	+3.33%	달러 지수	101.36	-0.3%
다우*	33,212.96	+1.76%	EUR/USD	1.08	+0%
VIX*	26.54	+3.19%	USD/CNH	6.67	-0.01%
러셀 2000*	1,887.90	+2.7%	USD/JPY	127.62	+0.02%
필라. 반도체*	3,115.35	+4.03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*	14,444.66	+2.14%	국고채 3년	2.952	+0.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220	+0.3bp
Eurostoxx50	3,841.62	+0.86%	미국 국채 2년	2.476	+0bp
MSCI 전세계 지수	656.87	+0.62%	미국 국채 10년	2.738	+0bp
MSCI DM 지수	2,802.59	+2.14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43.17	+1.98%	WTI	117.17	+1.82%
MSCI 한국 ETF*	67.60	+1.56%	금	1857.3	0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 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**한국 ETF 및
야간선물 동향**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56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15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3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35.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원/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

주요 체크 사항

2.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5 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결과
3. 6 월 1 일 휴장에 따른 장중 관망심리 유입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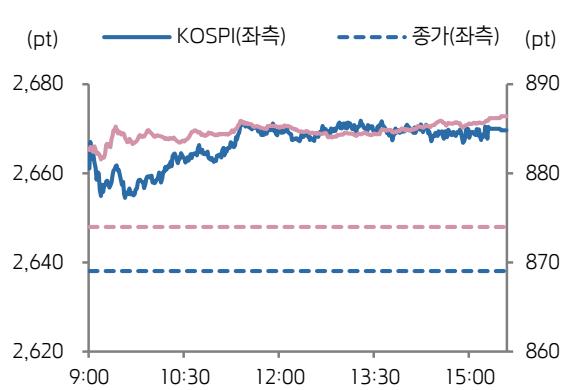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27 일(금) 미국의 4 월 Core PCE 물가(4.9%YoY, 전월 5.2%) 하락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재확산 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단기적인 안도랠리를 전개하고 하고 있는 모습. 향후에도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, 지속성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피크아웃을 넘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해야 할 것. 30 일 월러 연준 의사가 “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% 목표치에 근접해질 때까지 50bp 금리인상 기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, 이 같은 금리인상을 통해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”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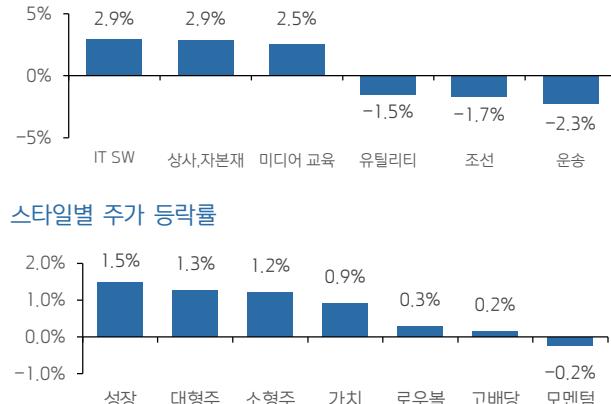
이는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물가가 안 잡힌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, 결국 통화정책과 증시 방향성 모두 인플레이션 경로에 종속되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적절. 이와 관련해 31 일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회동 결과에도 주목해볼 필요. 금번 회동에서는 경기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현재 미국 경제의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에 있음을 감안 시 실제적인, 가시적인 대응책이 나올 시에는 관련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.

전거래일 원/달러 환율 급락(-17.6 원),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증시는 1 일 휴장 부담, 일부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에도 우호적인 환율 여건 등에 힘입어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물론 인플레이션 불안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, 장중 중국의 5 월 제조업(예상 48.9) 및 서비스업(예상 45.0) PMI 가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변할 가능성은 존재. 다만 현재 코스피는 12 개월 선행 PER 과 PBR 이 각각 9.8 배, 0.96 배로 지난 12 일 연저점 당시의 베이온(PER 9.7 배, PBR 0.96 배)과 유사한 만큼 진입매력이 있는 구간이며, LG, 셀트리온 등 주요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기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.